화순군, 보육현장 학부모 전문가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모니터링…차원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화순군은 부모가 우리 아이들의 보육서비스 품질과 서비스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학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앞서 군은 학부모 2명, 보육전문가 2명 등 총 4명의 모니터링단을 지난 8일 위촉하고 모니터링단 역량강화 교육과 모니터링 지표 적용을 위한 어린이집 현장실습도 마쳤다.

부모 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은 2017년 미 점검 어린이집과 전남인증이나 평가인증 점검을 완료한 어린이집을 제외한 30여개 어린이집으로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루어진다.

부모 모니터링은 보육의 수요자인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2인 1조가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급식, 위생상태 등 4개 영역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하여 개선을 위한 현장 시정조치는 물론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한 차원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간의 소통 강화와 함께 신뢰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으로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신성장 동력산업 TFT 운영 용역 착수보고회

미래 먹거리 선제적 준비

광양시는 최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광양시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전략수립 TFT 운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신현숙 광양시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는 용역 관련 부서장 및 팀장, 용역 수행기관인 전남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팀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전남테크노파크 용진오 선임연구원의 보고로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TFT 운영계획, 광양시의 주력 산업인 철강과 항만,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의 정부정책 및 기술, 수요 동향등이 보고됐다.

광양시 여건 분석과 그에 따른 발전전략과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전략 발굴 추진계획 등이 차례로 보고되고, 이와 관련하여 참석자간에 활발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광양시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철강, 항만, 신소재 분야의 전문가 및 광양시, 전남테크노파크 등 산·학·연 관계자 21명으로 구성된 TFT을 운영할 계획이다.

TFT에서는 광양시 발전의 양대 축인 철강, 항만물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 방안,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신현숙 광양시장 권한대행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간 융·복합화로 사회·경제 변화, 도시 간 경쟁, 불확실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이 광양시의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나주시, 동계사료작물 수확 한창…축산농가 부담 던다

나주시가 지난 해 가을 파종했던 동계사료작물에 대한 본격적인 수확에 나서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조사료 재배 면적은 총 2,600ha로, 관내 48개 조사료 경영 업체와 550여 경종농가 간 재배계약을 통해 6월 상반기까지 목표치인 사일리지 46,800톤을 전격 수확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32억7,6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비 5억4천만 원, 조사료 종자 구입비 1억5,300만 원 등 총 39억6,900만 원을 지원, 양질의 조사료 확보와 자급률 향상을 도모한다.

사료비 증가, 자유무역협정(FTA) 여파로 가중된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목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조사료 수확현장을 방문, 생산 경영체를 상대로 조사료 생산면적 확대와 관련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금년 실시되는 쌀 생산조정제 추진과 더불어, 하계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풀 사료 급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4회 산업평화 실현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성료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산업평화실현을 위한 노사민정한마음대회'가 최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근로자, 기관·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광양시는 1995년 전남지역 최초로 '산업평화 광양선언'을 하고 매년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사협력을 통한 사업평화실현을 위해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24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산업평화 공동실천 선언과 장시간 근로개선으로 일자리 나누기 공동선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것.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지역사회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상호신뢰와 존중의 노사문화와 지역 사회의 동반 성장을 정착시켜 '일하기·기업하기 좋은 광양 그리고 살기 좋은 광양'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결의 하였고 모범근로자에게 도지사, 시장 등 표창장도 수여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성과 농가 소득창출 견인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시설을 이용하여 시제품 생산 및 상품화로 농가 소득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가 개장 1주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5월 개장한 농산물 가공센터 및 종합가공지원센터가 지역 소규모 농업인들의 호응에 힘입어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견인하는 가공·창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개장 1주년을 맞은 농산물 가공센터는 39회에 걸쳐 1770명에게 가공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였고, 78농가에 대해서는 포장재 디자인을 제작 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1050여 농가가 상담하여 그 중 550여 농가가 시제품 및 가공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가공센터는 우수 운영 사례는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33개 시군에서 335명이 가공센터 견학을 다녀갔다. 이러한 성과는 농가 소득창출로 이어져 현재까지 138농가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6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이는 농업을 단순 1차 생산에서 지역농산물 가공의 부가가치를 농가에 환원하는 민관학 지역 상생시스템 운영 모델을 제시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가공센터를 통해 생산된 분말류, 다류, 젤류, 들기름 등 78개 가공제품은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파머스마켓, 순천만국가정원 한방체험관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공품 품평회 및 상담회를 통해 꾸준히 판매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기적의도서관, '참사랑 부모학교' 운영

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순천기적의도서관에서는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2018 제2기 '참사랑 부모학교'를 운영한다.

참사랑 부모학교는 아이를 키우는 행복한 환경 조성과 올바른 책읽기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4차례 진행되는 부모교육으로 아이 심리, 자녀 양육, 어린이책의 이해 등 다양한 주제로 부모들을 만나오고 있다.

첫 날 제2기 부모학교는 동화작가이며 평론가인 김서정 씨의 '동화의 아버지, 안데르센'이라는 주제로 문을 연다. 현대동화의 초석을 놓은 안데르센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며 그가 아동문학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둘째 날은 '텃밭에서 캐낸 제철 아기 밥상'이라는 주제로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대표 오천호씨와 함께 건강한 제철 재료와 아기 성장에 맞춘 단계별 제철 이유식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날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자녀양육'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미술치료 분야의 권위자인 김선현씨와 함께 엄마와 아이의 삶을 행복으로 채우는 그림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

순천=김종영 기자